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3, 야고보서 2:21-26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야고보서 2:21-26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성경의 역사에 호소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나아갔고, 이것이 그가 내리고자 하는 판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물론 야고보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저자로, 구약에 기록된 구원 역사의 원동력이신 분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경전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호소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주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습니다. 천박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임을 깨닫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이루어졌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내보낼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라. 성령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그는 아브라함에 대해 논의한 다음 경전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수 없는 사람인 라합을 데려옴으로써 경전 역사에 계속 호소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뿐 아니라 경전 역사에서도 전형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아브라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에 실제로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에서 다음 것으로 이동합니다.

인과관계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당화로 시작합니다. 천박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싶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그는 여기에서 대안적인 관점을 대표하는 이 대담자를 천박한 사람, 정말로 공허하고 헛된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이 신학적 문제, 즉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신학적 확신, 즉 행위로 표현되지 않는 종류의 믿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즉, 그것은 실제로 그 사람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허함, 공허함이라는 의미의 일종의 허영심, 인간 자신의 깊이에 대한 일종의 부패에서 비롯됩니다.

즉, 사람이 이러한 관점을 채택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마음의 도덕적 부패, 또는 적어도 그 사람 마음의 도덕적 무감각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고 그는 암시합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단어는 아르고스입니다 [2:20].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사업이 불모지라는 것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비활성 상태입니다. 유희 상태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입장,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행해지는 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불임의 중요성 때문에 그가 불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꽤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관계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산의 약속이었고,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실제로 불임은 언약 관계가 없다는 것, 언약 관계 밖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일종의 환유였으며, 열매를 맺는 것은 표징이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어서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한 전체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도 그가 계속해서 지적하듯이 언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열매 맺음 사이에는 연결이 있고, 믿음과 언약 사이에는 한편으로는 믿음과 열매 맺음이 관련되고, 언약 관계가 없어 믿음이 부족하고 열매 맺음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물론 열매를 맺었습니다. 실제로 뭔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임 등을 극복했습니다.

물론 여기 21절에서 바울은 칭의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시 그는 이것을 수사학적 질문의 형태로 언급하는데, 이는 그들이 답을 알고 있거나 적어도 답을 알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즉, 아주 당연하다는 표현이겠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성경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읽은 것에 기초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숨겨진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 생각에 칭의는 확실히 바울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제임스에 대한 최고의 주석 중 하나인 루크 티모시 존슨(Luke Timothy Johnson)과 같은 일부 학자들이 있는데, 그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제임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정당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그러나 내 판단으로는 야고보가 여기에서처럼 칭의에 대해 말할 때 어느 정도 바울과 대화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외에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바울만이 신약에서 구원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로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만이 그렇게 합니다. 이 단어는 바울서신 이외의 한 구절에서만 발견되는데, 그것은 누가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보고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누가는 사도행전의 인물로서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바울의 용어입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바울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적어도 그는 사용합니다. 아마도 더 나은 표현은 그가 Paul이 했던 것과는 약간 다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칭의는 창세기 15장 6절인 할례에서 육체적 표현을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점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바울은 이 시점에서 매우 일관성이 있으며, 바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칭의를 경험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스스로 상기시켜 봅시다. 물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야고보도 실제로 이 구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야고보가 여기서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또 다른 암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곧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그분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 다음 그는 10절에서 바울이 한 일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그에게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아니면 후였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서 할례를 받기 전인 15장의 시작 부분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 바울이 칭의에 대해 실제로 논의하는 다른 부분에서 말한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읽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나는 여기서 부수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칭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들은 물론 바울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 종종 칭의를 생각하는데, 특히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기독교인, 특히 루터 계열의 기독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사교의 중심에 칭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 중 두 서신, 즉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만 칭의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심적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루터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감리교인인 CK Barrett과 같은 사람들도 논쟁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칭의라는 단어가 없는 곳에서도 바울에게서 칭의 개념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갖기 위해 반드시 용어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합니다. 공정 해.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내 생각으로는 야고보가 칭의의 문제를 바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어도 내 생각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잘못 해석한 특정 사람들에 대해 논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것.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야고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한 바울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과 관련된 칭의에 대한 바울의 이해는 그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할레 전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에 따른 다른 어떤 것에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결박한 사건, 창세기 22장의 아케다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제 야고보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할레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임스는 바울처럼 논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야고보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은 바울의 할레가 아니라 창세기 22장 12절에서 그의 외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 즉 여호와와 사자를 통하여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가 혹은 의로운가를 선언하십니다. 야고보에 관한 한 창세기 15장 6절의 선언은 단지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순종적인 믿음의 표현을 미리 가리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23절에서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창세기 15장의 성취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 야고보가 부르는 대로 이 일을 바탕으로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느니라 한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실제 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것이 그가 정당화에 관해 하는 주장입니다. 이제 그는 정당화에서 동행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22절에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쓴 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리적 인과관계의 좋은 예입니다.

돌아가서 진술을 한 다음 그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믿음은 그의 행함과 함께 역사했고 그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완성하다, 완성하다, 번역된 완성이라는 단어는 텔레오(teleo)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하게 되었고, 그분의 행하심으로 완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제임스는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반과 완성, 혹은 완전함을 말해야 합니다. 22절에서 이 시점에서 야고보는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행위에 대한 그의 강조는 그가 믿음의 역할을 경시하고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2절,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것에 근거하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행위에 대한 강조가 믿음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믿음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행위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22절에서 야고보는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믿음은 문자 그대로 적극적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사실, sunerge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양을 뜻하는 접두사 erge 와 ergon 또는 work의 동사 형태인 erge가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의 일에 역사하고 함께 일하며 도왔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행위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teleao 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 완전하게 가져오다. 완전하거나 완전한 믿음을 행합니다. 즉, 믿음이 애초에 해야 할 일을 하게 하고, 사람이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는 자리로 데려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완전하거나 온전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피터 데이비즈(Peter Davids)가 말했듯이 이것은 또한 야고보에 대한 또 하나의 매우 훌륭한 주석입니다. 피터 데이비드(Peter Davids)가 말했듯이 믿음은 행함을 돕고 완전한 믿음을 행합니다. 나는 이 시점에서 이것이 심각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여기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여된 의와 전가된 의 사이의 부적절한 구분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칭의의 전체 개념은 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Justification)라는 단어는 의롭다는 뜻의 dikaios 에서 나온 dikaiosune 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란 의롭다고 선언하거나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칭의는 의로움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듯이, 나는 야고보의 주장이 전가된 의와 부여된 의를 잘못된 종류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인 전문 용어에 따르면, 전가된 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가된 의는 부여된 의에 비해 실제로 도덕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순종의 삶, 그런 의미에서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야고보의 주장은 하나님에 의한 선언, 즉 사람이 의롭다거나 의롭다고 인정받는 선언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의의 현실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여겨졌는데,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선언에는 실제적인 도덕적 능력과 실제적인 의가 동반되므로 궁극적으로 선언된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와 실제의 의. 글썄요, 어쨌든 그는 계속해서 23a절에서 동반에서 완성까지, 완성에서 성취까지 결론을 내립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물론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이다. 즉,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 곧 행위로 나타난 믿음(22절)이라는 하나님의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유효하고 참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 행위로 표현되는 일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한 일에 의해 성취되고, 실현되었으며, 확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 평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 정확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라고 선언한 창세기 15장 6절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인과관계의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사슬이 있고, 하나가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으로 이어지며, 23b절에서 발견되며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아닌 구약성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대하 20장 7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 우리 하나님여 주께서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친구 아브라함의 말이냐? 그러나 이사야 41:8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 생각엔 그가 그랬던 것 같다.

야고보는 특히 이사야 41장 8절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행 과정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의 궁극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화해입니다.

행위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초로 이런 관계가 성취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실제적인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삶,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무관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요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주장에 비해 실제적인 의로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앞서 2:9에서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니 너희 행위의 법에 따라 죄를 정한 것이니라.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것이 의로운 행위인지 불의한 행위인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목적, 즉 자기 자신의 일과 어긋나는 일을 행한다는 믿음에 대한 주장은 물론 다음과 같은 모순이다.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물론 우정에는 상호 친밀감과 관계 조건 충족, 그리고 달성된 관계의 친밀함을 축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4.4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들어오고 6절의 일반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또, 이것은 논리적 인과관계입니다. 여기가 6번이라고 하더군요. 이 일반적인 결론은 실제로 24절에서 발견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표면적으로 이것은 바울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바울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것은 실제로 바울이 오해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야고보가 자신이 바울을 반대하고 있다고 믿었는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는지, 그가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바울을 오해했던 그의 주변 사람들을 반대하여 논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여기에 바울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 바울이 행위를 말할 때 흔히 지시하고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할 때 항상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행위를 사용할 때 그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24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이어지는 일종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함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행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즉, 행위는 믿음에서 비롯되며 믿음을 그 기초이자 활동 주체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법적 정당화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만 대신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일종의 신적 허구의 문제입니다. 죄인에 대한 법적 정당화는 없습니다.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학적 정당화는 있지만, 순종 없이 용서를 수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화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인에 대한 법정적 정당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운 자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70인역, 헬라어 구약성서의 디카이오(dikaio), 즉 실제 의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정당화하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칠십인역의 디카이오(Dikaio)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의롭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지만, 그 일을 뒷받침하고 활동하는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인내와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리라. 그러나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진노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여기서 바울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야고보가 여기 24절의 결론에서 말할 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자면, 바울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관해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특정

구절에 대한 일부 번역에는 단독이 추가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어 원본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루터가 추가한 것입니다. 독일어 번역에서 로마서, 특히 로마서 3장 28절에 믿음만을 추가 한 사람은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서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이 행위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여 의롭다 함을 얻거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 등이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바울에 관한 한 그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울이 행위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 바울은 행위보다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개념이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는 개인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의,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할 때 그것은 지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행위를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는 우리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확신으로 태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법적 형태로 조장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죄와 율법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때때로 작품을 긍정적으로, 실제로 매우 동의어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제임스가 여기에서 작품을 사용하는 방식과 일치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두셨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주목하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 둔 소망을 인하여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는 너희가 전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에게 이른 복음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듣고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너희 가운데서 자라나느니라. 여기에서 여러분은 내가 말했듯이 믿음이 실제로 행위로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한 율법, 한 말씀에 이루어졌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즉, 5장 13절에서 그가 말한 내용에 비추어 5장 6절을 이해한다면, 믿음은 순종과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 그러므로 바울의 행위는 참된 믿음의 필수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로마서 6:1-12에서 바울은 여러 면에서 야고보가 2장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가 반대하고 있는 오해를 정확히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죽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reed라는 단어는 디카이오(dikaio)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니라. 그러나 그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라고 생각하라.

사실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 같은 종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자유, 여기서의 바울의 자유 사용, 그리고 율법을 자유의 법칙, 즉 자유의 법칙으로 이해한 야고보의 이해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제 그의 주장의 이 시점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아브라함을 근거로 주장했지만 그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 전체에서 단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상치였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의 경험은 독특하고 일탈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5절에서 라합을 소개함으로써 이 잠재적인 반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명시적인 비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내보낼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경험이 독특하다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James는 같은 방식으로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늦게 살았던 여성, 이교도, 개종자, 매춘부인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매우 다른 사람의 경험, 아브라함과 매우 다른 사람의 동일한 칭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유명했습니다. James는 단순히 이것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명시적인 관심을 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물론 신앙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표시된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그녀가 말한 대로 야고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에게 주셨고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 땅의 모든 주민이 너희 앞에서 녹게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말리시고 너희가 두 왕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 시혼과 옥을 진멸하셨나이다

그리고 물론 히브리서 11장 31절의 유명한 믿음 명예의 전당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라합은 믿음의 모범으로 언급됩니다. 단순한 신조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그녀의 생명, 그녀의 가족의 생명,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탐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신조에 대한 동의만으로는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된 그녀의 행위는 그녀를 구원했고 또한 신앙 공동체,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도 유익한 영향을 미쳤으며, 물론 그녀가 한 일로 인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의 언약적 축복을 경험하는 부분. 물론 그녀가 정탐꾼들을 위해 한 일은 후대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제임스는 일반적으로 입증된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특정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라합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그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만, 그는 입증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즉, 그는 일반적인 원칙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의 죽음과 믿음과 행위의 분리로 나타나는 죽음을 분명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James가 여기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는 행위와 믿음의 분리가 죽음에 대한 신학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온갖 영역과 온갖 방법으로 분열과 파괴를 가리키고 결과를 낳는다. 그것은 죽음에서 비롯되어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이것을 1장에서 논의한 시험과 죄에 대한 전체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고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고 미혹됨이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것은 그가 1:15에서 묘사한 사슬과 같은 영역에 속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요점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면 믿음과 행함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다른 쪽이 없으면 어느 쪽도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썩어가는 시체, 비열하고 기괴하고 쓸모없고 더러운 것과 같으며, 믿음이 없는 행함은 몸이 없는 무정형의 영과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그리스-로마 세계의 많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좋은 생각이었을지라도 이것은 기괴한 개념이었고 실제로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육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이다. 인간을 무정형의 정신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제임스는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놓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썩어가는 시체와 같고, 비열하고, 기괴하고, 부정하고, 쓸모없는 것인 반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몸 없는 무정형의 영과 같으며,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능력도 의미도 없고 실제 존재도 없는 증기와 같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미 편파성과 이에 대한 논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2.1부터 13까지의 종합과 관련하여 조금 되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면에 있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을 선호하고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몇 가지 더 깊은 문제,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표준에 반대되는, 즉 악하고 세속적인 일반적인 인간 성향을 반영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신앙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 신앙의 본질, 신앙의 대상, 신앙 경험에 대한 모순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토론에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분별력의 측면에서 보면, 이는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겉모습의 상대적 가치와 지속적이고 궁극적인 관심, 믿음, 사랑, 왕국 소유의 가치를 혼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적인 지위와 지위를 하나님 나라에서의 지위와 지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소유 측면에서 이는 부자가 줄 수 있는 소유물을 획득하려는 더 큰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이 거짓말은 부자를 아첨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는 동기의 일부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4:1-10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 다시 그 내용을 선택할 것입니다. 권력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권력자들의 두려움과 위협에 기초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은 내가 이전에 언급하지 않은 측면이지만 2:6b-7은 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한 가지 동기가 부자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

그리고 추정의 측면에서도 이는 판사의 역할을 맡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역할, 하나님의 역할을 가장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역할을 자기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행동은 참된 종교와 참된 경건에 반대되며, 이는 심오한 아이러니를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적어도 야고보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맥락에서 이 행동을 제시하고, 예배에서 정확하게 표현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숭배가 참 하느님에 대한 숭배와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의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선호함으로써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자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확인하고 가난한 사람의 행동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법의 자유, 즉 자유의 법에 반하여 사람들을 속박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들의 첫 번째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이 필요하며, 그로부터 오는 심판도 필요합니다. 이 구절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이며, 시련을 견디지 않는 구체적인 예를 포함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 구절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좋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아마도 잠시 멈추기에 좋은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면 3장과 4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이것은 세션 번호 23, 야고보서 2:21-26입니다.